

2025년 9월 7일 주일 연중 제23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3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재물을 분별하여 쓰고 천상 사물을 알아보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기를 청합니다.

입당성가 : 17번 '정의의 하느님'

본기도

† 기도합니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지혜서 9장 13절-18절

화답송 :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제 2 독서 : 필레몬서 9장-10절. 12절-17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14장 25절-33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17번 ‘정성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 성가 : 157번 ‘예수 우리 맘에 오소서’

영성체 후 묵상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당신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지혜서의 저자는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83번 ‘순교자 찬가’

2025년 9월 14일 주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와 상처는 치유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의 희생 제사인 미사에 경건히 참여하며 우리 또한 각자의 묵인 십자가를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묵묵히 지고 갈 것을 다짐합니다.

입당성가 : 122번 '구원의 십자가'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의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저희가 지상에서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깨닫고
천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민수기 21장 4절-9절

화답송 : ◎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제 2 독서 : 필리피서 2장 6절-11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복음 3장 13절-17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 성가 : 170번 ‘자애로운 예수’

영성체 후 묵상

하늘과 땅을 이어 주는 십자가의 수직선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화해를 떠올립니다. 또한 십자가의 수평선에서 인간과 인간, 피조물과 피조물의 일치를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해방시키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모두 삶의 고난과 유혹의 시기마다 십자가에 현양되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봅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90번 ‘십자가에 가까이’

2025년 9월 21일 주일(연중 제25주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5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당신을 한 분뿐인 주님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십니다. 한계를 지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재물을 쌓으려는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느님께, 자유롭고 깨끗한 손을 들어 온 삶으로 영광을 드립시다.

입당성가 :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그 사랑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아모스 8장 4절-7절

화답송

◎ 불쌍한 이를 들어 올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 2 독서 : 1티모테오서 2장 1절-8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16장 1절-13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510번 ‘주님께 올리는 기도’

영성체 성가 :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뿐이시니 사람이 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쪽은 미워하고 한 쪽은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86번 ‘순교자의 믿음’

2025년 9월 28일 주일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탐욕스러운 부자는 외면하시며, 무분별한 자들의 방종을 그치게 하시고, 짓눌리는 이들을 정의롭게 보살피십니다. 언제나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 받아 주실 것을 굳게 믿읍시다.

입당성가 : 28번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

본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 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아모스 6장 1절. 4절-7절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 2 독서 : 1티모테오 6장 11절-16절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16장 19절-31절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

영성체 성가 : 165번 ‘주의 잔치’

영성체 후 묵상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가난한 라자로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부자가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